

유자에서 귤녹응애(*Aculops pelekassi*)의 발생생태 및 피해상황과 방제

이영수, 최덕수¹, 김규진

전남대학교 농생물학과, ¹전남농업기술원 난지과수시험장

유자과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귤녹응애의 발생생태 및 피해상황과 약제별 살충율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귤녹응애(*Aculops pelekassi*)는 난, 1령유충, 2령유충, 성충으로 불완전변태를 하며, 발육단계별 형태적 특징으로 난은 구형으로 투명하며 약 0.05mm이고 과실이나 잎 표면의 움푹 패인 곳에 산란한다. 유충은 썩기형으로 몸의 뒤편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모양으로 뚜렷한 형태적 변화는 없다. 성충은 유충과 비슷한 모양으로 약 0.13mm이며, 채색이 점점 짙어져 노란색 또는 주황색에 이른다.

귤녹응애의 연도별 피해과율은 1997년에는 16%, 1998년에는 22%, 1999년에는 48%로 해마다 그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다. 귤녹응애의 피해를 받은 과실은 정상과의 평균과중 141.1g에 비해 40.4g이 더 작은 100.7g이며 이용가능 과피면적율은 47%로 과실상품성을 크게 하락시킨다.

유자과원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중인 살비제 9종, 살균제 2종을 선별하여 약제별 살충율을 조사한 결과 약제처리 24시간 후 약제별 살충율은 아미트유제, 테부펜피라드유제, 피리다벤수화제, 만코지수화제, 펜프로유제, 프로지수화제는 100% 살충율을 보였고, 아세타미프리드수화제는 35%로 가장 낮은 살충율을, 그 밖의 약제들은 평균 50%이상의 살충율을 보였다.